

사생결단



품생품사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상도(류승범)는 3만 명의 고객이 우글거리는 황금 구역인 부산시 연제구 연제동을 관리하는 마약 중간 판매상.

부산시경 소속 형사 도진광 경장(황정민)이 마약계의 거물 장철(이도경)을 잡겠다고 덤비기 전까지 이상도의 삶은 비교적 평화로웠다. 그러나 도진광 경장에게 약점을 잡히면서 이상도의 인생은 빼떡거리기 시작한다.

불·꽃·대·결

황정민&류승범 Vs 조승우&강혜정 커플...범죄영화 Vs 멜로 경쟁



오동진의 세네카페

무로에 오랜만에 새로운 기대작 두 편이 동시에 개봉될 예정이어서 영화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이라 불리는 이 두 편의 영화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동시 개봉된다. 화제의 주인공 두편은 황정민, 류승범 주연의 범죄영화 '사생결단'과 조승우 강혜정 커플 배우의 멜로드라마 '도마뱀'이다.

두 작품 모두 이번 주 초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언론과 평론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에서 대대적인 시사회를 가졌다. 두 작품 모두 출연배우들의 인기가 현재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어서 시사회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사회에 몰린 관객만도 각각 천여명 수준.

평론가들의 반응 역시 두 작품에 모아지고 있는 뜨거운 분위기가

를 더욱 달구고 있다. 증권 평론가 김영진씨는 '사생결단'에 대해 "근래에 나온 영화 가운데 시나리오가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본다"며 "대개의 한국영화 시나리오가 책상에 앉아서 쓴 전문가집단의 스케치에 그친다면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망망대해에서 갓 낚은 물고기를 보는 것처럼 모든 디테일들이 살아서 짙짙 짙짙 판다"고 말했다.

'도마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또 한편의 대박 멜로영화가 나왔다'는 것. 특히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장면들도 조승우 강혜정 두 배우의 호연으로 잘 마무리됐다'는 반응들이다.

'사생결단'과 '도마뱀' 모두 27일 전국 극장가에서 대규모로 동시개봉될 예정이다. 영화계에서는 두 작품이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도마뱀'이 12세관람가 영화인데 비해 '사생결단'은 18세관람가여서 개봉 초기에는 '도마뱀'이 다소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화전문기자 ohdjin@hotmail.com

도마뱀



아리(강혜정)와 조강(조승우)은 초등학교 시절 짝꿍으로 만난 사이. 조강 앞에 엉뚱한 소녀 아리가 나타나고 이 때부터 조강은 사랑의 열병을 앓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리는 어느 날 말도 없이 그의 곁에서 사라진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조강은 다시 마음이 들뜨지만 아리는 또 갑자기 사라지고 증거처럼 사라지는 행동은 두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조강은 그런 아리를 끝까지 기다린다.

연극배우 줄리아 로버츠

브로드웨이 '사흘동안 비'로 데뷔...호평 이어져

해의 영화계 이슈

영화계에서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줄리아 로버츠가 브로드웨이 연극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지난 12일 개막된 연극 '사흘동안 비'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로버츠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뉴욕 평론가들로부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가, 매일 밤 전석 매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AP통신은 공연이 끝난 후 극장문을 나서는 로버츠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사인을 받기 위해 물러든 수백명의 팬들 때문에 늦은 밤시간까지 극장 주변 도로가 마비되고 있으며,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 십여명의 경찰들이 충돌해야 할 지경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3주동안의 입장권은 모두 매진된 상태다. 로버츠는 본공연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28일부터 1주일동안 진행됐던 프리뷰 공연에서도 약 100만달러의 입장권 판매수입을 올려 막강한 스타파워를 입증했다.

'사흘동안 비'는 토니상 수상작가인 리처드 그린버그의 작품으로, 부모의 비밀을 하나씩 캐나가는 남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97년 오프 브로드웨이 무대에서의 초연때에는 패트리샤 클라크슨이 주연을 맡았었다.

그는 AP와의 인터뷰에서 " '사흘동안 비'는 배우 차분한 작품인데 이번에는 뜻하지 않게도 떠들썩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됐다"면서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것은 연기자들과 제작진이 그런 소란에 휘말리지 않고 균형있는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줄리아 로버츠에 대해서도 "안정감있는 연기가 좋다"고 호평했다.

로버츠는 오래전부터 연극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던차에, '사흘동안 비'의 제작자이자 친구인 마크 플리의 적극적인 권유에 응기를 얻어 출연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입산과 출산으로 지난 16개월동안 일체의 외부활동을 중단했던 그가 브로드웨이 연극무대로 연기 재개를 선언했다는 점 때문에, 일찌감치 언론들은 이 작품에 큰 관심을 나타내왔다. 로버츠는 각종 신문과 방송의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물리칠 정도로 연기에만 온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로버츠의 출연을 가장 환영하는 것은 브로드웨이 연극계. 영화, TV 스타들을 은근히 경시했던 연극계의 태도는 이미 옛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한 극단 관계자는 "스타 연기자들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은 무엇보다도 재능"이라고 칭찬하면서 "언론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높은 흥행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연극계의 큰 자산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ohdjin@hotmail.com

일본에 한국영화 전용관 만든다

영진위, 도쿄 '이미지포럼' 통해 年12주 4~6편 배급키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안정숙)가 일본 도쿄 중심가에 한국영화 전용관을 마련한다.

영진위는 최근 서울 시내 일민 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쿄 시부야에 있는 예술실험극장 이미지포럼을 통해 연간 12주동안 4~6편의 한국영화를 배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지포럼은 130석과 100석짜리 두개관으로 구성돼 있는 극장으로 일본내에서는 예술영화와 실험영화, 다큐멘터리의 산실로 불

려왔다. 이들 영화들은 이미지포럼을 통해 소개된 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가까이 일본 전역의 극장에서 순회상영되는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다.

이미지포럼은 2004년부터 일본 문화청의 후원으로 '한국독립영화제'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기도 하다. 영진위가 구축하는 한국영화 전용관은 이 이미지포럼 안에 마련되는 것이다.

이미지포럼을 통한 영진위의 한

국영화 배급 계획은 그동안 우리 영화의 일본수출이 지나치게 상업영화에만 치중돼 있다는 판단 때문.

영진위는 따라서 이미지포럼에 상영될 한국영화는 비상업 영화에 해당하는 이른바 비주류권 영화에 국한할 예정이며 원활한 영화배급을 위해 총 1억8천만원의 P&A비용(배급홍보비용)을 사전에 지원할 계획이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in@hotmail.com



'왕의 남자' 화려한 퇴장

112일간 1,300만 관객 흥행기록 남기고 종영

'왕의 남자'가 장장 4개월간의 장기 상영을 끝내고 극장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왕의 남자'는 지난해 12월 29일 개봉돼 112일간 상영됐으며 1천230만 755명의 관객을 모았다.

순제작비 44억 원, 총 제작비 70억 원으로 만들어진 '왕의 남자'는 엄청난

대박 흥행으로 86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는 제작비의 12배에 이르는 것.

이에 따라 이 영화의 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대표 김인수)는 수익의 일부로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열린책들(대표 홍지웅)의 사육을 매입한 것

으로 알려졌다. 사육 구입가는 약 55억원. 시네마서비스는 '왕의 남자'의 흥행수익으로 새 사육을 마련하는 만큼 영화의 내용과 상징적으로라도 관련이 있는 경복궁 옆 통의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ohdjin@hotmail.com

Advertisement for 'Life Insurance' (생명보험) featuring a young girl pointing upwards. Text includes '생명을 소중히 하는 일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and '생명보험'.